

II. 인구성장

1 인구변화와 인구성장률	1.1 총인구성장률과 성장률 1.2 서울 자치구별 인구변화
2 2030년 인구 규모 예측	2.1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
3 요약	3.1 인구변화와 인구성장 3.2 2030년 인구규모 예측

1. 인구변화와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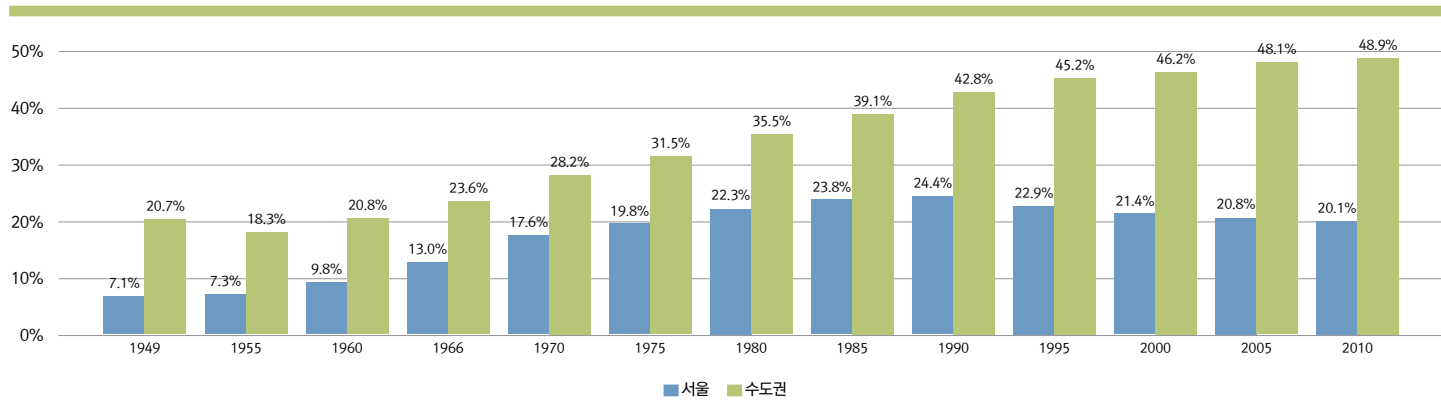
1.1 총인구성장률과 성장률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성장

인구총조사(2010)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의 인구는 963만 명으로 1949년 144만 명에서 약 6.7배 성장하였다. 해방 후 1955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는 서울의 인구가 157만 명이였다. 1944년 이래 수도권

인구가 5.4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는 1990년 1,060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과 전국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전국 인구 중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2-1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수 추이

구분	서울		수도권	
	명	%	명	%
1949	1,437,670	7.1%	4,171,614	20.7%
1955	1,568,746	7.3%	3,928,304	18.3%
1960	2,445,402	9.8%	5,194,167	20.8%
1966	3,793,280	13.0%	6,895,605	23.6%
1970	5,525,262	17.6%	8,878,534	28.2%
1975	6,879,464	19.8%	10,914,171	31.5%
1980	8,350,616	22.3%	13,280,951	35.5%
1985	9,625,755	23.8%	15,803,288	39.1%
1990	10,603,250	24.4%	18,573,937	42.8%
1995	10,217,177	22.9%	20,159,295	45.2%
2000	9,853,972	21.4%	21,258,062	46.2%
2005	9,762,546	20.8%	22,621,232	48.1%
2010	9,631,482	20.1%	23,459,570	48.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 : “%”열은 전국 인구대비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비중

서울시 인구 증가율은 1990년부터 부(-)의 증가율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55-1960년에 55.8%, 1960-1966년에 55.1%로 정점에 달한다. 이후에도 1985-199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3.6%로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현재까지 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정(+의)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그림 2-2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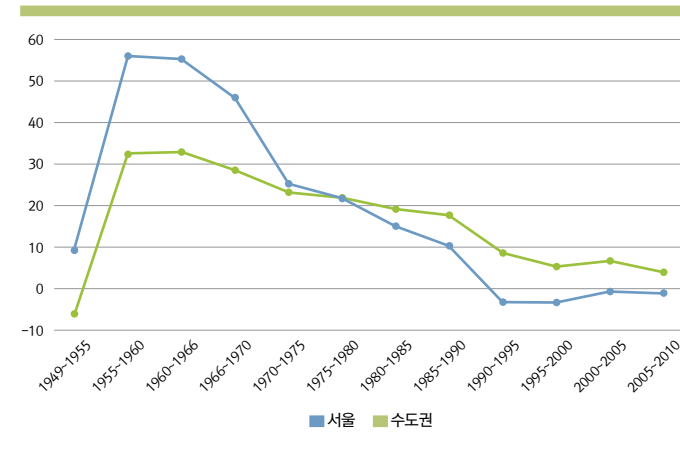


표 2-2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

구분	서울	수도권
1949-1955	9.12	-5.83
1955-1960	55.88	32.22
1960-1966	55.12	32.76
1966-1970	45.66	28.76
1970-1975	24.51	22.93
1975-1980	21.38	21.69
1980-1985	15.27	18.99
1985-1990	10.15	17.53
1990-1995	-3.64	8.54
1995-2000	-3.55	5.45
2000-2005	-0.93	6.41
2005-2010	-1.34	3.7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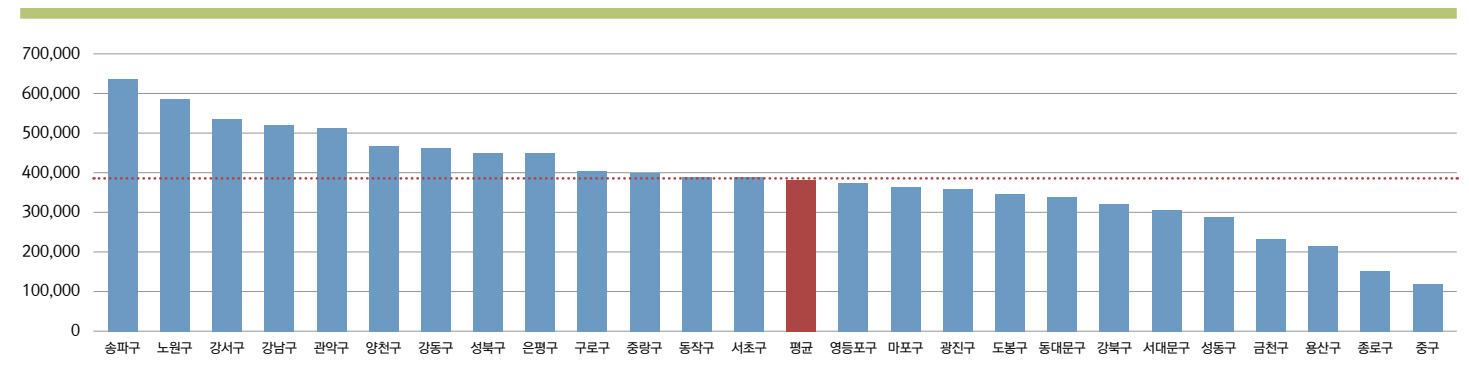
1.2 서울 자치구별 인구변화

서울 자치구의 수는 2010년 현재 25개구, 송파구 인구가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잠실지역이 포함된 송파구는 1990년에 인구 63만 명이었고 2005년에 57만 명으로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면 63만-64만 명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지역에 속하는 자치구의 인구는 많은 반면, 과거 도심지역이면서

정치 1번지로 알려진 종로구, 중구 등의 상주인구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에 불과해 상주인구의 측면에서 상위 자치구의 위상을 잃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 등 주간인구를 고려하면, 도심지역 자치구의 1일 인구는 여전히 매우 크다. 2010년 현재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다.

그림 2-3 2010년 서울 자치구별 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2-3 서울 자치구별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규모 추이

구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강남구	-	-	326,174	474,121	770,097	490,767	534,188	521,436	508,108	522,198
강동구	-	-	-	511,279	885,919	532,305	487,012	473,572	444,258	462,500
강북구	-	-	-	-	-	-	389,974	340,327	338,422	322,587
강서구	-	-	-	500,882	674,001	391,016	502,636	503,775	537,701	543,559
관악구	-	-	734,022	501,474	556,084	574,240	548,156	503,957	527,690	511,185
광진구	-	-	-	-	-	-	381,936	380,164	364,407	358,319
구로구	-	-	-	568,596	683,801	747,944	364,830	390,275	402,093	401,239
금천구	-	-	-	-	-	-	284,519	265,365	249,375	230,447
노원구	-	-	-	-	-	479,867	569,150	605,825	603,238	584,906
도봉구	-	-	631,484	753,181	846,644	671,649	355,846	352,098	367,998	347,220
동대문구	521,148	737,191	737,871	847,620	942,275	503,257	415,232	366,282	371,024	339,599
동작구	-	-	-	392,719	405,779	403,647	422,267	400,351	407,644	390,197
마포구	306,280	348,953	422,132	432,131	441,032	435,176	385,347	365,398	370,790	363,343
서대문구	531,744	784,325	794,666	417,854	402,945	385,476	357,503	348,769	340,327	307,562
서초구	-	-	-	-	-	395,362	384,221	367,096	370,850	388,220
성동구	554,822	817,828	629,254	687,249	750,949	798,510	333,976	322,990	324,986	290,277
성북구	519,510	979,584	604,359	588,347	583,281	551,017	489,626	459,011	440,254	452,704
송파구	-	-	-	-	-	634,124	636,473	632,983	577,362	640,732
양천구	-	-	-	-	-	490,343	460,349	458,998	472,751	466,456
영등포구	675,193	1,203,002	1,050,035	431,291	445,941	469,862	413,473	387,404	392,507	374,543
용산구	303,051	303,583	334,524	330,730	321,791	300,264	250,567	226,540	211,109	217,228
은평구	-	-	-	382,706	441,789	469,795	484,896	442,089	446,550	448,112
종로구	224,761	215,971	333,049	291,960	265,342	242,891	190,116	168,879	154,043	151,069
중구	156,761	134,815	281,832	238,476	208,085	187,355	135,082	130,370	126,679	117,253
중랑구	-	-	-	-	-	448,383	439,802	440,018	412,380	400,027
총계	3,793,270	5,525,252	6,879,402	8,350,616	9,625,755	10,603,250	10,217,177	9,853,972	9,762,546	9,631,482
평균	421,474	613,917	573,284	491,213	566,221	481,966	408,687	394,159	390,502	385,25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에 가까운 자치구는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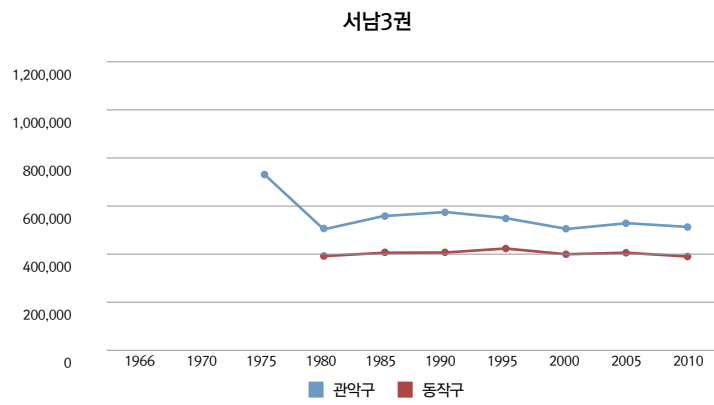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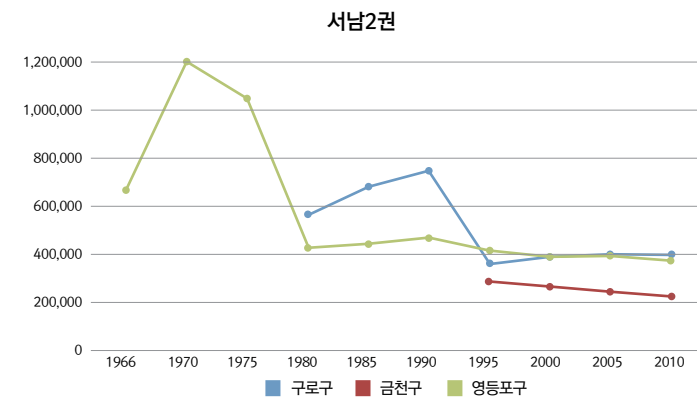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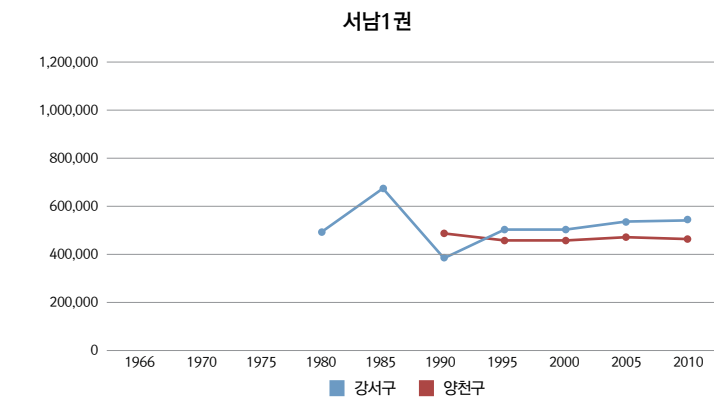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수는 작게는 11만 명에서 많게는 64만 명에 달한다. 각 구별 인구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약 4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 구는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이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구로구,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마포구, 광진구 등의 인구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이다.

역사적으로 인구 100만 명 가까웠던 거대 자치구는 영등포구, 성북구

197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영등포구의 상주인구는 120만 명이었다. 1975년에도 역시 100만 명을 넘었다. 이후 영등포구는 구로구, 금천구 등이 분구하여 2010년 기준으로 37만 명 수준이다. 성북구의 상주인구는 1970년 98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 성북구의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2010년 현재 성북구의 상주인구는 45만 명으로 서울의 자치구의 평균인구 규모 이상의 대형 자치구이다.

그림 2-4 서울 자치구별 인구 규모 변화





2. 2030년 인구 규모 예측

2.1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

서울시 추계인구는 2026년 1,022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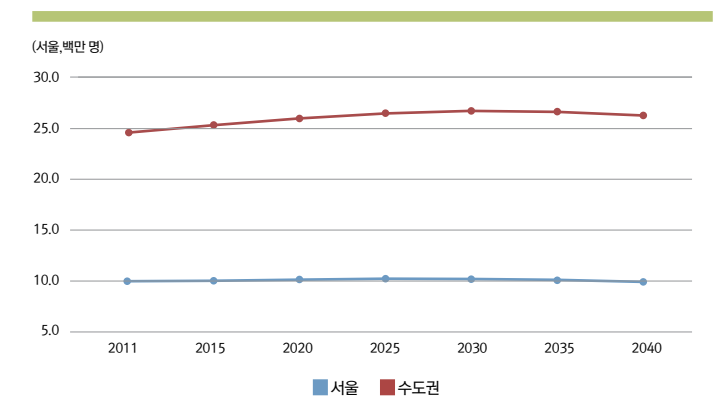
서울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는 2015년부터 다시 미미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금씩 증가하는 서울시 인구는 2026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수도권도 2031년 2,670만 명을 정점으로, 전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인구 추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정이 반드시 필요

인구추계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의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고, 출산력 회복의 기대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 출산력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사망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노년층의 사망력 감소는 평균수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한다.

인구이동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데는 서울로의 유입인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도 서울의 지가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낮은 출산력과 노년층에서 사망력의 감소는 서울인구의 고령화를 지속시킬 것이고, 서울로의 인구유입 억제가 결합하여 서울의 인구 증가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2-5 서울과 수도권의 추계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